



우리 소리의 빛으로 가을을 물들이다

죽곡초,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대구죽곡초등학교(교장 정영호)는 지난달 26일(토) 죽곡하울림국악오케스트라가 ‘제14회 구미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서 초등 관현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죽곡초는 2006년 죽곡하울림국악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전통예술학교 및 대구시교육청 지정 국악오케스트라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죽곡하울림국악오케스트라 단원은 총 67명으로, 악기 연주 실력과 함께 협력과 조화의 바른 인성을 기르며, 각종 대회에서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제10회 전국청소년국악관현악제’에서 최우수상(대구광역시교육감)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죽곡하울림국악오케스트라는 김선제 작곡의 ‘아름다운 인생’을 굿거리장단, 휘모리장단 등 다양한 장단의 멋을 살린 연주를 통해 국악기 소리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 되어 연주하는 국악의 선율과 장단은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 국악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시간을 제공했다.

대회에 참가한 6학년 학생은 “4년 동안 국악관

현악단 활동을 하면서 연습에 참여했는데, 초등학교의 마지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 친구들과 함께 합주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와 국악관현악 합주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영호 교장은 “국악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죽곡초등학교〉



달서초 ‘10월 별별 데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 및 독서문화 확산

대구달서초등학교(교장 은귀향)는 10월에 있는 임신부의 날, 세계 채식인의 날, 우리나라 책의 날, 애플데이를 기념해 지난달 21일(월)~30일(수)까지 총 10일간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0월 별별 데이’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영양·사서·상담 영역을 연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태아 카드 만들

기, ▲채소 그림 그리기, ▲채소 장점 찾아보기, ▲책 표지 디자인하기,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채소와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애플데이 엽서 쓰기를 통해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번